

## 2012년 베네수엘라 대선 분석: 차베스 VS 카프릴레스

조영현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대선은 단거리 달리기보다 마라톤에 비유된다. 지난 7월 1일 4선을 노리는 베네수엘라의 현 대통령 우고 차베스와 야당 통합후보 카프릴레스 간의 100일 동안의 기나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양 진영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되면서 2012년 베네수엘라 대선에 국내 언론뿐 아니라 국제 언론매체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차베스는 2007년 선출직 공무원 연임 제한 규제 철폐 문제를 내걸었던 국민투표에서 단 한 번 진 것을 제외하곤 지난 14년간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는 ‘선거의 달인’이다. 그러나 상대후보인 39세의 카프릴레스도 이 점에 있어 차베스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다. 그도 1998년 처음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난 14년간 한 번도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카프릴레스도 총선, 두 번의 시장선거, 주지사선거, 야당통합후보 경선 등 수많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그 동안 차베스 진영의 여러 후보들을 낙마시켰을 뿐 아니라 파블로 페레스 같은 쟁쟁한 야당의 정치인들까지 누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런 의미에서 카프릴레스는 젊지만 화려한 정치 경력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이번에 마주한 차베스라는 상대는 기존의 경쟁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다. 중도 우파 노선인 카프릴레스는 차베스가 꿈꾸는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의 꿈을 좌절시킬 수 있을까? 차베스는 새롭게 부상하는 신예 정치인을 누르고 다시금 선거의 달인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이번 대선은 차베스식 정치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늠해



대선후보로 출마한 엔리케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와 지지자들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차베스 정부의 업적과 실정에 대해 국민들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차베스 지지자들은 빈곤율 감소, 사회적 소외 해소, 국민의 사회적 참여 증대, 사회복지 강화, 석유 수출시장의 다변화, 라틴아메리카 지역연대 강화 등을 그의 치적으로 내세운다. 특히 교육과 보건 등 사회부문에서 수행한 다양한 미션 사업이 국민의 필요를 직접 충족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차베스 반대자들은 지난 14년 간 포퓰리즘 정책, 권위주의, 대통령 일인에 집중된 권력, 언론의 자유 침해,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분열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하여 그의 치세 동안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제는 차베스 정권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가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균형 잡힌 평가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차베스의 연설, 담론, 이념들과 그가 실제 이루어 놓은 결과를

비교하지 않고 그의 말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차베스 지지자들은 정부의 홍보나 선전물에 대한 무비판적 찬사를 보내고, 차베스 반대자들은 무조건적인 악평을 쏟아놓는다. 각 진영에서 내세우는 논리를 대변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나 자료가 각기 다르며, 때로는 서로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각 진영이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유리한 자료들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결과물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더라도 분석틀이나 이념적 시각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차베스 정부의 업적과 실정에 대한 정확한 대차대조표 작성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그를 ‘민중의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환생’이라고 칭송하는 가하면, ‘독재자’, ‘포퓰리스트’로 폄하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객관적인 정보나, 업적에 근거해서 투표하기보다 이념적 성향이나, 감성적 끌림, 여론을 좌우하는 언론이나 방송매체의 선전 전술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대선도 예외 없이 이념에 따라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지고 있다.

새로운 사실은 차베스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 혁명’을 이끌던 차베스에게 최초의 좌절을 안겨준 2007년 국민투표를 분기점으로 그의 인기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암 투병 과정에서 베네수엘라를 오랫동안 비운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의 베네수엘라 경제·사회적 상황이 그리 밝지 못한 점도 국정을 책임진 차베스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납치, 강도, 절도의 증가로 치안과 공공안전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 2011년 한 해만도 19,336명이 살해당했으나, 범인 검거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멕시코와 함께 가장 위험한 나라로 언급되고 있다.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의 요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높은 물가와 인플레이는 서민들의 삶을 짓누



유세하는 차베스 대통령

르고 있다. 거시경제지표도 부정적이다.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10,867 달러로 2008년 이후 최저선이다. 정부부채는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5.1%로 떨어졌다. 실업율도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주택문제도 전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카프릴레스는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 차베스 정부를 공격할 뿐 아니라 자신이 병들고 늙은 차베스에 비해 젊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야당연합후보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가가호호 방문 전략을 구사하며 많은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체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전략이다. 게다가 그는 끊임없이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차베스 통치를 ‘헌정 독재’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면 ‘다른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정치를 보여줄 참신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선거공약을 통해 가족의 가치 보호, 국가 개혁과 탈중앙화를 강조하고, 교육, 보건, 치안, 주거, 고용 부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참신한 것은 아니다.

방송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고,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가진 카프릴레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엘리트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친민중적 이미지를 심기 위해 최근 더욱 부심하고 있다. 선거전 개막을 오지에 사는 원주민 공동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은 그의 이런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배제된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차베스에게 몰린 민중층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카프릴레스를 40여개의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정당과 단체들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소정당뿐 아니라 사민주의 노선의 AD와 기독교사회당 노선의 COPEI 등 주요 전통정당들도 포함되어 있다. 카프릴레스가 그동안 차베스의 모노드라마만 펼쳐지던 정치무대에 신선한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아직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차베스라는 거인이 갖는 존재감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차베스는 힘과 노련함을 동시에 지닌 현직 대통령이다. 현재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과, 공산당, 일부 좌파가 뒤에서 그를 밀고 있다. 그는 암이라는 내부의 적을 몸에 지닌 채 피 말리는 선거전에 돌입했다. “나는 암에서 완치되었다”라고 그가 선언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차베스는 죽지 않았다”, “차베스는 떠나지 않는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그의 병세나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억측과 오보가 난무하고 있다. 선거전이 가열될수록 그의 병세와 암에 대한 정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베스는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유권자와 만나고 있는 카프릴레스와 달리 체력이 덜 소모되는 방송매체나 언론을 통한 선거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차베스는 카블리레스만큼 자신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절박함이 없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고, 여기에 여당 뿐 아니라 전국적 정치 조직망과 단체들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통합사회주의당 소속 당원만 해도 57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의 뒤에는 막대한 자금을 유인하는 권력과 석유가 있다. 많은 선거전문가들은 선거기간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이고, 경제지표들도 약간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돈이 풀려 일시적 경기활성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차베스는 최근 전략적으로 자신의 강성 이미지를 부드럽게 희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확실한 지지 세력인 극빈층을 넘어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룰라 브라질 전대통령을 비롯한 주변국의 좌파지도자들은 이미 차베스 지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도 차베스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구 DatinCorp에 의하면, 6월 말 현재 차베스는 유권자의 46%의 지지를 받고 있고, 카프릴레스는 39%의 지지를 받고 있다. 차베스가 조금 우세하지만 7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차베스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조사에서 차베스 지지라라고 응답한 사람은 41%인 반면, 야당 지지자라고 답한 유권자는 30%였다. 그리고 차베스 지지자도 아니고, 야권 지지자도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7%로 나타났다. 이 27%의 향배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가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사회적 세력들에 대해 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정치행위자들 외에 선거 기간 우리가 주시해야 할 세력으로는 보수이념을 대표하며 반차베스 노선을 보이는 가톨릭교회가 있다. 가톨릭 신도 수가 많은 이 나라에서 종교는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특히 최고 지도자들로 구성된 주교단의 이념적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들은 2007년 국민투표에서 차베스의 승리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최근 칠레와 멕시코에서처럼 베네수엘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학생들과 SNS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베네수엘라 정치는 계속 불안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베스가 기나긴 선거전을 잘 버틸 수 있을지, 승리하더라도 국정운영이 가능할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지나 않을지 등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후계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차베스의 죽음이 야기할 국정 혼란은 베네수엘라에 불행이 될 것이다. 만일 카프릴레스가 승리하더라도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통합사회주의당의 비협조로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들이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차베스 지지자들이 많은 군부가 카프릴레스의 승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11만 5000명의 정규군 외에 차베스는 15만 명의 민병대를 조직해 놓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군부는 베네수엘라 정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데로 대선은 마라톤이다. 힘 조절과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 차베스가 젊은 카프릴레스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승리해 '21세기 사회주의'를 정착시킬지, 아니면 카프릴레스의 '다른 길'이 열릴지 지켜볼 일이다.

---

조영현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